



로스쿨을 꿈꾸다 이은영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2000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가이드 역할을 할 소설 <로스쿨을 꿈꾸다>가 발간됐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제도 도입과 신설에 참여한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신입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자신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저술했다.

저자는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조인이 되려는 법과대학 학생을 등장시켜 '법·정의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법의 원칙을 공부하거나 말하기 전에 날카로운 추리력과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해 읽어야 할 예비 법조인의 교양서다.

김진성 기자



불멸의 자화상, 돌아온 황우석 손영국 지음 | 진한M&B 펴냄 | 1만2000원

생명공학 과학자 황우석 박사의 뒷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 장편소설이 나왔다.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솔한 인간성과 국보급 과학자로 대우받다가 백의종군하게 된 일련의 뒷이야기들을 소설화했다. <불멸의 자화상, 돌아온 황우석>은 불교 신자인 황우석 박사가 강화도 전등사에서 치병한 이야기, 명상과 국선도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연구에 매진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습, 이종성 화백의 시와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김수영의 시로 표현된 모습 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이상연 기자



나는 펜이고 펜이 곧 나다 - 한국 만화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장성욱 지음 | 크림스 펴냄 | 1만9000원

절제절명의 위기를 겪어와야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황미나, 김수정, 고우영 등 누구보다 처절한 인생을 경험한 만화가들이 좌절의 나라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인생이야기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치라고 생각하며 절박 주저않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한다.

<편의 전쟁>작가 박인권이 부처의 고행을 떠올리며 무인도에서 문화생 세 명과 수행을 하던 중 일었던 성공이야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온 척추결핵으로 40여 년 간 한 평의 공간에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온 만화가 지현곤 이야기 등 삶의 고통이 곧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임을 증명한다.

이상연 기자



인생의 참 주인을 찾는 깨달음의 길 :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장 깊고 오랜, 질문에 관하여 사공미림 지음 | 안희경 옮김 | 판미동 펴냄 | 1만2000원

### 티베트 왕국으로부터 전해 온 행복 비법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존재의 물음에 질문을 던져보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감응뿐인 인간에게 티베트 샬라라 전사의 왕국으로부터 전해 온 행복의 해법이 한 권의 에세이로 다가온다. 세상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던 삶의 진실과 비밀의 인생수업이다.

잡지 '플래닛(PLANET)' 선정 '우리 시대 비전이 되는 30인'으로, 명상가 미팜 잠양 가초(Mipham Janyang Gyatso, 1846~1912)의 환상으로 인정받는 저자 사공 미팜(Sakyong Mipham)은 동서양의 시각과 문화를 독자적인 안목으로 원융한 조화의 가르침을 펼친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가장 깊고 오랜, 질문에 관하여>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점을 통해 인류의 삶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냉철히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지침이다. 저자는 붓다의 깨달음이 다른 은하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 스승의 말씀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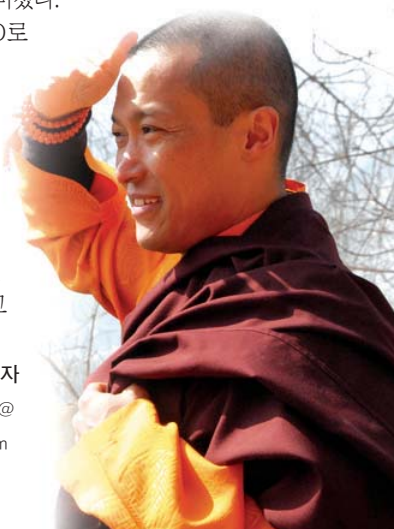
"붓다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니? 붓다는 착한 본마음 안에서 온전한 확신을 품어내셨지. 착한 본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한 거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찌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주의 지혜와 자비를 지녔지. 그 우주는 마치 태양을 기다리며 겨울잠자는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달음과 180° 동떨어져 있다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몇 각도만 빗겨 있을 뿐이야"라는 가르침에 마음 설렌 이후 실제

로 지혜와 자비를 발현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누구나 지닌 착한 본심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는 법을 익혀갔다.

티베트어 '사공'은 '지상의 수호자'를 의미한다. 수호라는 것은 결국 태초의 성품인 착한 본심이 구현된 세상이다. 샬라라의 가르침은 "아기를 요람에 넣고 보듬어 주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어루만져라"라고 조언한다. 사실상 어떤 행동에 임함에 가장 성실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일러준다. 바람의 말은 '나'라는 틀 너머로 우리를 인도한다. 호랑이의 만족, 사자의 기쁨, 가루다의 평정심, 용의 유쾌한 지혜를 삶을 다스리기 위한 길이 돼 지상의 천국을 구현하도록 돕는다.

윤진이 안희경은 성선인재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 석사 과정을 마쳤다. 불교방송 PD로 8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다양한 매체에 미국의 명상선(禪) 문화와 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기연숙 기자 omiflower@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인과경	현담	선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위일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며	김일수	도피만사
9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우비	염화실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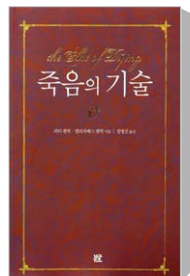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다양한 종교 죽음에 대한 준비 다각도로 살펴



죽음의 기술 피터 펜워 · 엘리자베스 펜워 지음 부글 펴냄 | 1만5000원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의 기술>은 환형과 인사제형, 죽어가는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 같은 현상을 비교해 적지 않다. 죽음,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특이현상을 소개한다. 저자는 "죽음의 경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터득하는 지혜는 독자의 몫"이라며 "훌륭한 죽음이란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 믿음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방향을 정하고 원하는 대로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10장 '풀리지 않는 의식의 문제'에서는 선불교의 '깨

달음'과 의식의 문제를 다룬다. 명상을 통해 나와 너, 주제와 대상이라는 구분을 초월해 우주의 넓이와 깊이, 통일성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을 준비한다. 티베트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죽음에 대한 준비도 다각도로 비쭈본다.

'입사제형' 분야의 대가로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는 작가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이성적 통찰과 직관을 연구해 우주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죽음을 직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가장 큰 영향은 죽음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한다.

죽음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고 죽어가는 사람의 영역이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삶을 계속 살고,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의 과정에 대해 배운 것을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에 집중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죽음의 기술이다.

이상연 기자

### 호랑이 처녀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



호랑이 처녀의 사랑 강숙인 글 | 김중민 그림 사계절 펴냄 | 9800원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처녀의 슬픈 운명! <삼국유사> 5권 '감통(感通)'에 실린 '김현감호(金現感虎)' 설화가 그림동화로 찾아왔다. 지금의 경성북도 경주에 있던 호원사(虎願寺) 장건에 얽힌 사찰 연기 설화다. 신라 38대 원성왕(785~798년) 8년, 수도 서라벌을 배경으로 호랑이 처녀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화랑 김현을 짝사랑한 호랑이 처녀는 사람이 되고픈 소망뿐이다. 해마다 2월 초여드렛날부터 보름날까지 사람으로 변해 흥분사 탐들이를 하며 부처님께 발원하던 처녀는 김현과의 사랑을 완성하기에 이르지만 이 둘의 인연은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

"이미 맺은 마음이 있는데 어찌 영원한 이별이 있겠어요?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만나기를 부처님께 빌어 주세요."

인간이 되어 사랑을 완성하고픈 호랑이 처녀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 당시 신라의 미풍양속에 스민 애니미즘의 정령신앙(精靈信仰)과 불교를 융합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교훈을 전한다.

사랑의 설레임과 안타까움의 여정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채운 김중민의 그림은 말로 표현 못 할 두 인연의 마음을 그려내며 온 나라가 불국토 아닌 곳 없음을 형상화 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기연숙 기자

## 달다

###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삼공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佛전등록 전5권 / 佛무문관 / 佛벽암록 / 佛천부경 / 佛금강경  
 佛신심명 / 佛중도가 / 佛반야심경 / 佛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佛환단고기 전5권 / 佛법흥선사심명 / 佛선가귀감 / 佛법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피고 북산에 첫눈 하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책쳐세상을복심사 / 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규강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